

감독당국에 반기든 은행들, 키코 배상거부 확산

법치 넘어선 윤석헌의 키코 실험 “체면 깎인 금감원”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손실액 15~41% 배상” 분쟁조정안 수용 銀 ‘우리’ 한국 신한·하나·대구銀 시한 연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은행들이 외화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을 또 다시 연장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배상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특정 기업은 배상을 받고, 특정 기업은 배상을 못 받는 절반의 성과로 절하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은행(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은행)이 금감원이 권고한 분쟁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나머지 5개 은행 중 신한·하나·대구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을 한달 간 연장했고, 산업·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곳에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수용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사외이사 전원 동의를 얻지 못해 수용여부 시한을 연장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긴급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며



키코공대위가 9일 신한은행에 항의방문하고 실무진과 면담했다.

/키코공대위

“금감원에 우선으로 키코 배상 수락 기한 재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분쟁조정안 수용여부 시한을 연장했다. 하나은행은 추가 사실 확인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이를 신중하게 판단한 뒤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두 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일성하이스코에 각각 28억과 6억원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법리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불수용하게 됐다”며 “따라서 또다른 피해기업의 보상을 논의하는 협의체 참여 또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 당시 감면해 준 미수 채권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수준(6억원)을 초과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미 6억원(배상 권고액)보다 더 많은 약 8억원의 부채를 감면해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제시

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검토해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배상을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해 신한·하나·대구은행도 수용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2개은행이 금감원에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개 은행이 다음 기한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은행들은 배상금액보다 배임문제에 휘말릴 것을 걱정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달 6일 3개 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그 동안의 노력이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감원 입장에선 은행의 요청대로 수용시한을 연장해주는 방법 외에는 권고안을 강제로 따르게 할 방법이 없다.

은행과 피해기업 양쪽이 모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야만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기보, 광주銀과 소재·부품기업 혁신성장 도모 우리카드 “앱에서 손쉽게 자산관리”

소재·부품산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창출 도움 기보, 100억규모 우대보증 지원 계획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술보증기금-광주은행간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조규대 기보 전무이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은 광주은행과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소재·부품 산업 영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사회적으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게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은행은 기보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광주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보증비율(100%) 우대, 5년간 매년 보증료 0.2%p 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 이번 협약 외에도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100선 정도에 전담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소재·부품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보 조규대 전무이사는 “기보는 광주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 강소기업들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등 정부의 중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자산, 지출정보 등 통합 서비스

우리카드는 브로콜리와 제휴해 스마트앱(애플리케이션) 내 자산조회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흩어진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 정보를 손쉽게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평소 금융·핀테크사 간 시너지 창출과 상생 추구에 가치를 둔 정원재 우리카드 사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이뤄진 서비스다.

서비스는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쉽게 구성돼 있다. 메뉴는 자산과 소비 화면으로 각각 구분돼 있다. 자산메뉴를 통해 ▲은행별 계좌 잔액 및 이체내역 ▲금융사별 대출이용금액 ▲기간별·카드사별 카드청구서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메뉴에서는 ▲업종별·기간별 지출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은행, 카드 외에도 증권, 보험, 캐피탈 등 관리 대상 자산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인 금융자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우리카드는 해당 서비스를 개선해 금융상품 추천, 개인 신용관리서비스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통합자산관리 플랫폼이자 고객 개인별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월 말까지 응모 및 서비스 이용 동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브로콜리 세트(브로콜리 인형과 브로콜리)를 증정한다. /김희주 기자 hj89@

우리금융, ‘사회적거리두기’ 전 그룹사 확대

우리銀 인력 20% 이상 분산 배치

우리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그룹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9일 밝혔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임직원 각자가 정부와 전문가들이 권고한 철저한

예방수칙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그룹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경기도 성남에 마련된 비상용 대체사업장 외 우리금융 남산타워 및 서울연수원도 본부에서 인력 20% 이상을 분산 배치한다. 본점 구내식당은 매주 보는 좌석을 없애 직원

간 밀접 접촉을 막는다. 또한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키고, 모든 임산부 직원에게 이달 2일부터 2주간의 공가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우리카드와 우리증권은 본사 및 고객센터 인력을 대체사업장에 분산 근무시키고 임직원의 시차 출·퇴근을 적극 권장한다. 부서별 순환근무조를 짜는 등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는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환경 살리는 예·적금 출시

Sh수협은행은 9일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을 출시했다.

개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은 ▲해양쓰레기 감축서약 ▲봉사활동 또는 상품홍보 참여 ▲입출금통장 신규거래 ▲자동이체 출금실적 등 조건 충족시 최대 0.50%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예금상품은 1인당 최대 5억원 한도에서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월단위로 가입 가능하고 금리는 최고 연 1.8%를 제공한다. 적금상품은 1년 이상 3년 이내 연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정액적립식은 가입한도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최고 연 2.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자유적립식은 가입한도 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내로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한다.

수협은행은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상품의 연 평균잔액 0.05% 이내에서 해양쓰레기 저감활동 지원금을 마련해 은행 부담으로 출연한다. /나유리 기자